

# 국회문방위 - 출판인쇄계 정책간담회

## “업계 애로해소 국회차원 최선 다 하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와 출판인쇄 단체장 정책간담회가 지난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파주출판도시재단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정병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판인쇄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회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장들이 당면과제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정병국 위원장과 김성동·김성태위원(한나라당), 이용경(창조한국당)위원, 최민수 수석전문위원, 광영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나기주 출판인쇄산업과장,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기웅 파주출판도시재단 이사장, 윤행두 한국출판진흥재단 이사장, 김언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회장, 한철희 출판인쇄회의 회장, 김중영 출판협동조합 이사장, 강희일 학술출판협회 회장, 최태경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 신경렬 한국출판콘텐츠 대표, 이창연 서점연합회 회장, 김종수 출판유통진흥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발언의 주요 내용이다.

**백석기 회장 :** 출판계는 최근 업계의 현안을 총합해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도서정가제의 확실한 유지와 출판진흥기구의 설립, 출판저작권의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철희 회장 :** 우리 협의회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크다.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강희일 회장 :** 2007년에 출판진흥계획이 마련된 바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유명무실하다. 진흥책이 마련되면 그의 실천이 중요하다.

**김중영 이사장 :** 출판사와 서점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조합인데 현재의 조합 사옥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

**이창연 회장 :** 도서정가제는 확고한 입법과 정책실천이 필요하다. 19% 할인율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EBS에서 교재를 만들어 판매해 출판사와 서점이 도산위기에 놓여있다.

**홍우동 회장 :** 인쇄는 수출전위산업이고 지식산업의 핵심이다. 간접 수출물량까지 포함하면 연간 50억 달러를 넘는다.

현재 인쇄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부활하고 세제지원, 문화업종인 인쇄물에 대해서는 최저임찰제 폐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쇄종주국의 위상에 맞는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과 직지 및 직지 이전의 금속활자본을 찾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최태경 회장 :** 스마트 TV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TV로 책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행두 회장 :** 교도소와 군부대에서 책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기도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책을 많이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출판인쇄박물관 건립이 절실하다.

**김언호 회장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논문이 책자로 발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출판도시가 시대에 맞게 변모-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기웅 이사장 :** 박물관 건립이 대단히 중요하며 출판의 중요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광영진 실장 :** 출판인쇄계의 어려움과 숙원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견이 있는 부분과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도 출판계가 발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

**정병국 위원장 :**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잘 정리해서 출판인쇄계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특히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면 좋겠다.

